

문화공간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7만여명 방문

'하안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1971년 준공돼 역대 전북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던 하안양옥집은, 2024년 5월 도민에게 개방되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운)에 따르면 하안양옥집을 개방한 이후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1년간 약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추석 연휴와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이 찾으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하안양옥집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개관 이후에는 청년 예술작가 기획전시, 무형유산 전시, 전북 예술관광 수상자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열렸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하안양옥집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지난해 전주중앙초등학교 전교생 81명(유치원 포함)이 참여한 기획 전시는 약 2개월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결실로, 아이들은 전주한옥마을의 풍경과 일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생동감 있게 재해석해 작품으로 담아냈다. 올해 초에는 청년이 떠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완주 화정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한 기획 전시도 진행됐다. 아울러,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해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정의 달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하는 팝업 영화관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형 문화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및 장애 예술인 전시, 전주의 옛 사진전,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 활용 프로젝트 등 도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기획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하안양옥집은 도지사의 관사를 넘어, 도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의미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예술을 경험하고, 도민과 예술가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공예주간 '부안상감X부안감상' 개막 첫 주 인기

2000여명 방문... 부안청자박물관서 23~25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2025년 공예주간이 성황리에 첫 주를 마무리했다. 부안청자박물관을 주 행사장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3일간 약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공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관람객들은 상감청자를 비롯한 공예의 아름다움을 전시와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했다. "아이와 함께 오기에 너무 좋았다", "다양한 공예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특히 야외 가마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소성하는 현장은 모든 연령층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번 행사의 대표 콘텐츠로 떠올랐다. 오는 주말(5월 23~25일)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청자 태토 다지기 △질 뉘기체험과 청자조각을 직접 발굴해보는 △사공파리 발굴단이 무료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공예인의 도구와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 △공생공락(共生工樂), 청자 잔을 선택해 음료를 즐기는 △청자카페, 지역 공예인의 작품을 만



나는 △공예 마켓 및 체험존이 운영된다. 특히 5월 24일 오후 2시에는 3일간 가마에서 소성한 청자(도자)를 전시하고 10여 작품은 현장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라 우수한 청자를 저렴하게 구매해 볼 수 있다. 공예주간 주요 행사장인 부안청자박물관은 5월 25일 폐막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부안군 문화재단 누리집(www.bacf.or.kr)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세기 미술 거장展, 관람객 1만명 돌파

팔복예술공장서 '20세기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펜' 전시 중

20세기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펜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 특별전 '20세기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펜'이 개막 한 달 만에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주 팔복 예술공장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가 5월 21일 기준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넘어섰다.

전시는 개막 이후 하루 평균 약 33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평일에는 예술 전공자 및 단체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시니어층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관람객층이 고루 찾고 있다.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의 첫 유료 기획 전시로, 앙리 마티스의 '재즈' 시리즈 판화 및 아트북, 라울 뒤펜의 회화, 판화, 삽화, 원

화 등 총 169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두 거장의 색채 실험과 구성의 미학을 통해 20세기 그래픽 아트의 미학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상품 코너에서는 전주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팝프렌즈' 문화기부 캠페인과 함께 운영돼 작품 관람과 동시에 기부 활동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는 7월 27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티켓링크에서 사전 예매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26일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문학 강좌

남원시는 오는 26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남원시와 남원지원(법원)이 협력하여 마련한 특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 기억, 연대, 그리고 정의의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강좌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연에는 제1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강사로, 법적 판단을 넘어 인간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박 변호사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깊은 인문학적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경북문화관광공사,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와 문화·관광 자원의 상호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 된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광역 관광 상품 공동개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획 및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공동개발, △생태자원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 공동 마케팅 협력, △문화·관광 자원 정보 공유 등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문화의 날 '김제문화놀이터' 31일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 광장에서 '김제문화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김제시 문화의 날'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민에게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됐으며,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및 문화공연으로 구성됐다.

문화 체험으로는 키팅 만들기, 반려물 만들기, 캐리커처, 우산페인팅과 같은 공방체험과 나무와 블록 놀이터, 숨은그림찾기, 드로잉 제

함이 준비되어 있으며, 디제임 공연, 파이어댄스컬 퍼포먼스, 브라스밴드의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그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 포토존과 예술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김제문화놀이터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김제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